

# 단짝 친구는 항상 붙어 있어야 해요

안기순 | 번역가

미국에서 그림책을 한 권 한 권 수집하면서 재미있게 읽었던 책을 소개하려 한다. 이 책은 해마다 미국에서 출판된 그림책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에 수여하는 '칼데코트 상 Caldecott Medal' 을 1996년에 수상했다.

버클 경관은 내프빌에서 그 누구보다도 안전 수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새로운 안전수칙이 생각날 때마다 종이에 적어 게시판에 압정으로 꽂아놓고는 내프빌 초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한다. 하지만 그곳 초등학교 학생들은 버클 경찰관의 지루하기 짝이 없는 강연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코까지 골면서.

한데 어느 날 내프빌 경찰서에서 글로리아라는 이름의 경찰견을 구입한 후로 버클 경관은 글로리아와 파트너가 되어 내프빌 초등학교를 찾게 시작했다. 그 지루한 강연을 하려고 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졸고 있던 아이들이 벌떡 일어나고, 눈이 왕방울만큼 커지고, 환성을 지르고, 너무 웃어서 눈물까지 글썽이는 것이 아닌가!

버클 경관은 자신의 안전수칙 강연에 아이들이 이토록 재미있어 할 줄은 짐작도 하지 못했다. 사실은 버클 경관이 등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글로리아가 무대 위에서 엷치락뒤치락 우스운 몸짓으로 지루한 안전수칙 강연을 재미있게 만들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버클 경관이 "여러분이 앓을지도 모르는 자리에는 절대 압정을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글로리아는 엉덩이를 움켜쥐고 혀를 길게 빼고는 공중 높이 뛰어 오른다. "번개가 치며 폭풍우가 일 때는 절대 수영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글로리아는 눈을 질끈 감고 혀를 쑥 빼고는 필쩍 땀다. 감전된 것처럼 털을 사방으로 곤두세우고 말이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 가지 않는 법이다. 우연히 녹화방송을 본 버클 경관이 자신의 강연이 그토록 인기를 끌게 된 이유를 알아버린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이 아닌 글로리아에게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의기소침해진 그는 강연 제의가 들어오자 글로리아만을 다른 경관의 순찰차에 실어 보낸다. 하지만 글로리아는 무대 위에 외롭게 앉아만 있을 뿐 미동도 하지 않다가 잠이 들고, 그런 글로리아를 지켜보던 아이들도 잠이 들고 만다. 글로리

아는 단짝이 있을 때만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일단 재미있다. 진지하기만 한 버클 경관의 모습과 풍부한 표정과 몸짓의 글로리아의 모습이 대비되면서 묘한 재미를 자아낸다. 삽화는 다양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 냈고, 생동감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유머를 담고 있어서,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재미가 쏠쏠하다. 또한 삽화에 있는 그림 하나 글씨 하나에 저절로 눈길이 멈추어 어느새 삽화 속 그림을 뜯어보게 되고 자잘한 글씨를 읽게 된다.

버클 경관과 글로리아의 강연을 듣고 많은 학생들이 감사편지를 경찰서로 보내는데 그 중에서도 버클 경관은 클레어라는 소녀가 보낸 별 모양의 편지를 가장 좋아한다. 클레어는 둘의 강연을 들은 후에, 그리고 글로리아가 쉴쉴하게 홀로 무대 위에서 잠이 든 사건 이후 등 두 번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따뜻한 글에 마음이 훈훈해지고 저절로 미소를 지었던 기억이 난다.

안전수칙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글로리아처럼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말이다. 이 책의 결말 또한 산뜻하다. 글로리아 혼자 무대 위에 올라가 강연을 망친 사건을 통해 버클 경관은 평상시 습관대로 불현듯 최고의 안전수칙을 생각해 낸다. "단짝 친구는 항상 붙어 있어야 해요." **★**

## English



원 제 《버클 경관과 글로리아 Officer Buckle and Gloria》

저 자 Peggy Rathmann

출판사 Penguin Putnam Books for Young Readers

# 허무의 저편에 지은 '여자'의 집

윤성원 | 번역가

Japanese



원 제 《6,000도의 사랑》  
저 자 가시마다 마키  
출판사 新潮社

이 소설은 제18회 미시마 유키오상의 수상작으로 스물여덟 살 문학의 신예 가시마다 마키가 혼신의 힘을 다해 써낸 연애소설이다.

이름이 주어지지 않은 주인공인 '여자'는 남편과 어린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다. 어느날 저녁식사 준비를 하던 중 아파트의 비상벨이 오작동으로 울려 퍼진다. 그 순간 그녀의 뇌리에는 나가사키를 한순간에 초토화한 원자폭탄의 그림자가 떠오르게 된다. 불현듯 어떤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는 견잡을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히게 된 여자는 아이를 이웃에 맡긴 채 나가사키로 향한다.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6,000도란 바로 원폭이 투하된 날의 나가사키의 온도다. 그리고 나가사키의 호텔에서 러시아인인 어머니와 일본인인 아버지를 둔 혼혈청년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그곳에 머무는 며칠 동안 하염없이 몸을 섞는다. 이와 같은 스토리를 화자<sup>화자</sup>인 '나'가 망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이 소설이다. '나'는 자기와 꼭 닮은 과거와 현재를 살고 있는 여자에 관한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나'의 어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맹목적인 사랑을 받았던, '나'의 자살한 오빠에 관한 기술과 여자와 청년의 불안정한 정사가 다루어진 기술이 교차되면서 소설은 진행된다. '여자'는 혼탁과 무질서로 가득찬 청년이야말로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잔해가 뒹굴고 있는 나가사키라는 토지라고 생각하고 그를 '나가사키'라고 부른다.

여자는 그와의 정사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능멸적인 기대마저 갖는다. 청년에 대한 사랑 따위는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가사키에 대한 희미한 휴머니즘조차 엿볼 수 없다. 전작에서도 어머니와 같은 등장인물의 속성이 상실된 채 단지 여자<sup>여자</sup>로만 표기하는 등 익명성을 실험한 작가였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일체의 등장인물에게 고유의 이름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녀가 묘사한 대화체도 관념적이어서 글이 아닌 시의 세계에 있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사물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부여된 듯 연상에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점도 흥미롭다. '여자'의 내면을 이야기해 주는 모놀로그와 같은 문장이 끝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일한 상대인 청년은 단순히 그녀에게 육체를 제공하는 인형 같은 존재에 불과하며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진 인간이란 개체가 극한적으로 부각된다. 한편 '여자'에게는 청년을 배려할 여유나 의도 따위는 엿보이지 않는다.

여자의 과거와 나가사키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오버랩시키고자 한 작가의 의도에는 적잖은 비약이 느껴지기는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작품은 가족이나 사랑에 대하여 집요하게 그 질실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감정이입하기 힘든 부분이 다소 있을지 모르나 '허무의 저편에 세계를 창조하려는 소설'이라고 격찬한 어느 문예비평가의 말처럼 사랑을 오히려 신경질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 이 작가가 데뷔 이래 집요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은 남자와의 비대칭인 데에서 기인하는 '여자의 공허감'이다. 테마 자체가 페미니즘적인 요소가 다분하니만큼 남성독자들에게 과연 어필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다른 어느 일본작가와도 흡사하지 않고 독창적인 느낌이 드는 이 작가의 작품 속 글귀를 인용해 보고자 한다.

“남자라는 새는 자기 자신의 음성으로 울고 자기 자신의 언어로 말한다. 오빠가 앓아간 내 음성을 이번에는 다른 남자에게 바치려고 했다. 내 음성으로 울고 내 언어로 말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상대가 어떤 남자인지는 상관없었다. 오빠가 내 안에 남겨두고 떠난 무질서를, 비록 그것이 위선일지라도, 질서를 갖춘 모양으로 해줄 생물을 찾았다.” **한문**

# 누가 세상의 부를 독점하는가?

조정훈 | 번역가

오늘날 매일 10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 때문에 직, 간접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8억1,500만 명은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 세계의 식량생산 수준이 인류의 숙원인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에 아직 부족한 것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의 총 농업 생산량을 합하면 약 120억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 지구상 62억의 인구 식량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생산량이다. 지구의 한편에서는 과다 영양섭취로 인한 질병과 비만을 걱정하는 반면 지구상 인구의 약 8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유엔인권위원회 '식량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인 장 지글러가 지은 책 《새로운 세계의 지배자들》은 아무도 의문을 던지지 않는 "인류의 범죄행위"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

통계를 하나 더 들여보자. 세계의 최고 부자들 225명이 지닌 재산은 1조 달러에 이른다. 이 금액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25억 명(세계 인구의 47퍼센트에 해당한다)의 연봉을 합한 금액이다. 이처럼 세계의 부가 한곳으로 집중되고 있는 동안 지구에서는 매 7초당 어린이 한 명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 장 지글러의 표현대로 "부로 넘쳐나는 이 지구에서 매일매일 집단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장 지글러는 통계수치와 분석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눈먼 욕망을 채우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린 다국적기업들과 세계 금융자본들, 그들의 후원자이자 배후인 아메리카 제국을 날카롭게 공격한다.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들이 이들 "새로운 세계의 지배자들"을 뒤에서 도와주는 후원자들이다. 유엔인권위원회의 보고관이란 특별한 직책으로 세계를 떠돌며 유력한 인사들과 제3세계 빈민들을 만나 왔던 저자가 제시하는 자료는 무시할 수 없을 만치 구체적이다. 그가 폭로한 사실 하나!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이던 1980년대 미국의 무기는 적국 이란으로 유입되곤 했다. 이란은 무기 대금의 일부를 모르핀이나 헤로인으로 지불하곤 했다. 미국은 스위스 취리히에 마약을 판 돈을 예금해 두었다가 후에 자신들이 지원한 니카라과 용병

들의 군사자금으로 썼다. 레이건은 이 용병들을 미국 건국의 아버지에 비교하며 칭송하곤 했다."

저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허상의 실체를 밝힌다. 이제 세상은 누구의 지지나 투표도 없이 선출된 이 "새로운 세계의 지배자"들 손에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세상의 부와 식량,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을 주무르며, 끝없는 욕망으로 부와 이익을 극대화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창출하는 부를 '행복'이라 포장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 식량의 22퍼센트를 200개 다국적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 속에서 세계 8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만성적인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지은이 장 지글러는 제네바대학 사회학과 교수로 있으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인권의 사각지대를 중흥무진 누비며 "인간의 식량을 확보할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엄청난 부를 독점한 '새로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7초마다 한 명씩 굶어죽는 아이들! 이 극명한 생존의 명암을 통해 저자는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게 만든다. **4.4**

## French



원 제 《새로운 세계의 지배자들 Les Nouveaux Maîtres du Monde》

지은이 장 지글러 Jean Ziegler

출판사 파랑테즈 Points

# 어찌해야, 어디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가?

김재혁 | 번역문학가 · 시인 · 고려대 교수

## German



원 제 《쿠델 다델두 Die wilde Miß vom Ohio》  
저 자 요아힘 링엘나츠 Joachim Ringelnatz  
출판사 디오게네시스 Diogenes

요아힘 링엘나츠(1883~1934)는 이미 생전에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다닌 인기인이었다. 그것은 그의 멋진 시 낭송 솜씨 때문이었다. 본명은 한스 뷔티히어지만, 그 외에도 핑코 마이어, 프릿츠 되리, 구스타프 헤스터 같은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1919년부터 사용한 '링엘나츠'라는 이름은 뱃사람들이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어린 해마를 이르는 말이다. 평생 30여 가지의 직업을 전전한 것은 그의 방랑벽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래서 스스로도 "방랑 예술가"를 자처했다. "방랑 예술가"로서 그는 뮌헨 슈바빙거리의 카페에 나타나 관습을 비웃는 기발한 내용의 시를 쾌활한 목소리로 읊어댔으니 그것을 듣는 이들은 속으로 킁킁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호쾌함은 그의 수많은 직업 중 마도로스, 즉 뱃사람으로 일하면서 얻은 것이다. 게다가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뛰쳐나가 뱃사람이 된 그의 성격으로 보아 그에게서 제도가 주는 구속을 싫어하는 측면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발휘된 그의 자유분방한 사고 및 상상력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 문학은 자유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그의 개인적 체험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의 작품이 많은 판매부수를 기록한 것은 개인적 삶에 충실한 서술 때문이다. 그의 작품의 대상들은 현실적인 것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있지 않으면서 일단 환상적인 것 쪽으로 나갔다가 궁극적으로는 그 환상을 깨며 다시 현실과 결합된다. 그의 작품은 환상과 모험을 즐기는 것 같으면서도 탈환상적이며 부드러운 우울과 강력한 위트가 가미되어 있다. 주로 이야기되는 것은 그가 뱃사람으로서 겪은 바다체험이나 이국의 술집, 여자, 이국적 풍경 등이다. 또한 인간의 특성을 지닌 동물들이 등장하여 블랙코미디를 해보이기도 하며, 결말부에 가서 극적인 장면 전환을 꾀하는 작품들도 상당수 있다. 다 독자들의 흥미를 끌 만한 것들이다.

쿠르트 투홀스키는 그의 산문에서, 생의 내면을 엿듣고 통찰해 들어가는 예민한 관찰력을 보고 있다. 특히 그가 28살에 쓴 짧은 단편 〈생의 열쇠구멍을 통해서〉를 받아 본 토마스 만은 "작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끌어가는 재주가 대단하다"고 평가

한 바 있다. 또한 헤르만 헤세는 그에 대해 "시인의 심장을 가졌으며 기사와 같은 머릿속엔 작은 새 한 마리를 품고 있는, 정말 고상하고 품위 있는 몽상가"라고 말한다.

링엘나츠의 산문집 《쿠델 다델두》를 읽으면서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이유는 작가가 부조리하고 그로테스크한 것을 아주 경쾌하게 이야기하며 넘어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작가의 놀랄 만한 상상력에 힘입어 처음엔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이던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상식 밖의 궤도로 들어선다. 그 무한궤도를 날아오른 작품 속의 소재나 주인공들을 보면서 독자는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 공중 체류 시간이 주는 의미를 독자들은 반추하게 된다. 〈산의 요정 츠비벨찰〉이나 〈불쌍한 필마르탱〉 이야기, 그리고 크빌피퍼 박사, 파익스 다델두 그리고 막달리시무스 바움차프가 등장하는 이야기에서 궁극적으로는 독자에게 진지한 질문이 던져진다. 그 질문이란 "인간은 어떻게 해야, 그리고 어디에 있을 때 정말로 행복한가?" 하는 것이다. 알프레트 폴가의 평가대로 "링엘나츠는 현자의 돌과 혼동할 정도로 흡사한 바보의 돌을 발견한 사람이다." 인생의 한계와 선악을 넘어서려는 현자가 아닌, 바보를 추구한다는 말은 오히려 인간적 정감미를 느끼게 해준다. 인간의 사고 속에 들어 있는 현명한 듯한 바보스러움, 바보스러운 듯한 현명함이 링엘나츠가 그리려고 하는 세계라고 할 것이다.

"이 작가가 우리에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까닭은 그의 손을 거치면 아무리 진부하고 하찮은 것이라도 기적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에리히 케스트너의 단적인 평가처럼 이 산문집 《쿠델 다델두》는 모든 것이 진부함과 지루함, 단조로움, 전망 없음 등으로 빠져들고 있는 요즘 일상의 답답함을 풀어줄, 어른들을 위한 시원한 동화의 역할을 할 것이다. **추천**